

정조연간의 백색복식(白色服飾) 착용풍습에 관한 연구

최 지 희 · 홍 나 영⁺

서울시청 학예연구사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Wearing Practice of the White Costumes during King Jeongjo's Reign

Ji-hee Choi · Na-young Hong⁺

Curat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14. 8. 15, 심사(수정)일: 2014. 11. 24, 게재확정일: 2014. 12. 1)

ABSTRACT

Historically, white clothes have been pass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as the symbol of the Korean people. This study was motivated after coming across a text written by Lee Ok(李錕, 1760~1815), a writer during the Joseon dynasty. Lee wrote that "Koreans mostly wear blue clothes." This raised questions regarding the wearing practice of the white clothes at the time of King Jeongjo's reign(1776~1800), and led to further studies on the matter. The results show that discussions were held about changing the color of the government official's *changui*(擘衣) from white to blue. An order was also given replacing white boots with black boots. Therefore, it is supposed that blue clothes phenomenon was influenced from the blue *changui* policy. However, this change was temporary as later generations wore preferred white with the exception being women's skirts. Women preferred blue skirts to white skirts for a long period. Detailed analysis of the white *changui* showed that people were burdened by high dyeing costs, and this was a big factor as studies indicated a large gap in wealth disparity. In a society that put funeral and ancestral rites as one of its priorities, the white clothes could have been favored due to its multi-functional use. Also, the noblemen who set importance on Gija(箕子) Joseon connected white clothes custom to Gija. This connotes that the reason for wearing white clothes differed depending on the class. And as white clothes were widely worn, people developed different ways of wearing the clothes for aesthetic purposes.

Key words: *changui* (창의), King Jeongjo's reign(정조연간), Lee Ok(이옥), white boots(백화), white clothes(백의)

I. 머리말

‘한민족(韓民族)은 백의민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다. 일제강점기의 사진자료에서 백색 한복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고¹⁾,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백의의 민족상징성을 언급하여 왔다.²⁾ 복식사 학계에서도 거듭된 금제 속에서 지속된 백의 착용 풍습과 상징성, 미의식을 논의하여 왔다.³⁾

일반적으로 한민족의 백의 착용 풍습은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東夷傳)에서 부여의 백의가 언급된 이래⁴⁾,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 편찬시기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조선시대 문인인 이옥(李岳, 1760~1815)의 글이 완역되면서, 그의 글 중에 “우리나라는 청색을 숭상하여 백성들이 대부분 청의(靑衣)를 입는다.”는 구절로 백의 풍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⁵⁾ 영조연간에 백의 금제를 내린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⁶⁾, 그 이후에는 조선시대의 구체적인 금제가 밝혀져 있지 않다. 한편으로 이옥의 청의(靑衣) 언급은 정조 23(1799)~정조 24년(1800)까지 영남지방에서 경험한 견문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정조연간의 자료를 중심으로 당시의 백의 착용 풍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조연간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일성록(日省錄)』 등의 관찬사서 및 개인 문집, 회화 등의 다양한 자료가 현존하여 연구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였던 조선왕조실록은 제작 특성상 주요 정치경제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복식은 간단하게 언급되는 반면, 조선왕조실록 편찬시 자료가 되는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 문집에서는 조정의 명령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실행 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회화는 시각자료로 중요하지만 정조연간으로 제작연대와 지역적 배경이 명확한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정조실록(正祖實錄)』·『승정원일기』·『일성록』 등의 관찬사서, 정조의 어록인 『일득록(日得錄)』, 정조연간에 활동하였던 인물인

홍석주(洪奭周, 1774~1842), 유득공(柳得恭, 1749~1807), 이덕무(李德懋, 1741~1793) 등의 문집에서 백의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해당 기록을 기록화·풍속화 등의 회화자료로 보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화자료는 정조연간으로 제작연대가 알려져 있거나, 당시 활동하였던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화 중에는 <화성능행도 8곡병(華城陵幸圖八曲屏)>, 풍속화 중에는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 신윤복(申潤福, 1758?~1813 이후)의 작품을 주로 참고하였다.

현종·숙종연간에 예송논쟁(禮訟論爭)이 있었고, 이후로도 왕실의 상복(喪服) 제도가 조정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만큼 정조연간에도 상제례복으로서의 백의제도가 중요하게 언급되나, 이는 특수한 경우의 예복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외의 경우에 착용하는 백의를 살펴보았다.

II. 이옥의 「봉성문여(鳳城文餘)」에 나타난 백의

이옥은 정조연간에 성균관 유생이었던 인물로, 정조의 비판 대상이었던 폐관소품(裨官小品) 문체를 사용하여 양반신분임에도 지방의 군대에 강제로 복무하는 충군(充軍)의 벌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이러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옥은 자신의 문체를 크게 바꾸지 않아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었고, 역사서에도 문체반정(文體反正) 사건 이후로는 그 이름을 찾기 어렵다.

그는 충군으로 정조 23년(1799) 10월 18일에서 다음해인 정조 24년(1800) 2월 18일까지 118일간 경상도 삼가현, 일명 봉성에 머물면서 견문한 일들을 글로 남겼는데⁷⁾, 이를 친구인 김려(金麗, 1766~1822)가 「봉성문여」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 영남 우도지방의 백의(白衣) 선호 풍습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청색을 숭상하여 백성들이 대부분 청의(靑衣)를 입는다. 남자는 겹옷[袷]과 누비[裊]가 아니면 일찍이 이유 없이 백의를 입지 않고 여자들은 치마를 소중히 여기는데, 더욱 백색을 꺼려서 홍색과 남색 이외에는 모두 청색 치마[裙]를 두른다. 의(衣)는 한 가지 색이 아니지만 삼년복이 아

니면 또한 일찍이 백색 저고리와 치마[白衣裳]를 입지 않았다. 유독 영남 우도는 남녀 모두 백색 옷을 입으며 아녀자들은 비록 갓 시집은 사람이라도 백색 저고리와 백색 치마[白衣白裳]를 입는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젊은 아녀자 대부분이 다리[鬘]를 대어 꾸미지 않고 목면(木棉)으로 만든 짧은 백색 치마[白短裙]를 입은 것을 보고 과부인가 의심했는데, 모두 갓 시집와서 치장한 것이었다. 오직 기녀와 무녀만이 청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다. 그 사람들이 대개 청색을 천시하고 백색을 숭상하기 때문이다.⁸⁾

이욱의 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색을 숭상하여 사람들이 대부분 청의를 입는데 유독 영남 우도만은 남녀가 모두 백의를 입는다고 하였다. 영남 우도 외의 지방에서 여자가 백색으로 저고리와 치마를 모두 입는 것은 삼년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치마는 홍색·남색 외에는 청색이 제일 흔하다고 하였다. 반면 영남 우도에서는 백색 저고리와 치마 차림을 일상복으로 입고 있으며, 청색 차림은 기녀와 무녀만이 입는다는 풍습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영남 우도 사람들의 '백색 숭상[尙白]'으로 들었다.

이욱이 머물렀던 봉성은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이다. 영남은 경상도의 별칭으로, 조선시대에는 서울에서 볼 때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좌도(左道)', 서쪽은 '우도(右道)'라고 불렀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의 『택리지(擇里志)』에 의하면 좌도는 땅이 척박해서 백성들의 살림이 가난하지만, 우도는 땅이 비옥해서 백성들의 살림이 넉넉하다고 하였다.⁹⁾ 사상적으로 살펴보면, 좌도는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을 중심으로, 우도는 남명 조식(曹植, 1501~1572)을 중심으로 유교화가 진행되었다. 두 사람은 동갑으로 같은 영남인이었지만 대조적인 면이 많았다. 퇴계는 근신하고 온화하며 인물평론과 정세에 대하여 말을 아끼며 '인(仁)'을 강조한 반면, 남명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정치의 폐해를 가차 없이 비난하고 '의(義)'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성향이 각 학파에도 반영되었다.¹⁰⁾

한편으로, 이욱의 지방 견문은 영남 우도에만 한정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욱은 그보다 4년 전인 정조 19년(1795) 9월에도 충군 명령으로 3일간 삼가에 머물렀는데, 당시에 한양에서

출발하여 경기·충청·전라 지방을 거쳐 영남 우도에 도착한 일정과 날짜별로 작성한 글이 남아있다.¹¹⁾ 따라서 그의 견문은 한양 외에 경기도·충청도·전라도 등의 다른 지방에도 걸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봉성지방의 여자들은 대부분 백색 치마를 입는다는 내용은 「봉성문여」중에 시장풍경을 묘사한 글에도 등장하므로¹²⁾, 그의 관찰 기록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Ⅲ. 백색복식의 착용 양상

1. 남자복식

영조연간에는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으므로 청색을 숭상해야함에도 당시 사람들은 모두 백의를 입고 있으므로, 이를 고치고자 백의착용을 금지하고 청색을 숭상하도록 하였다.¹³⁾ 정조연간에는 관리들이 백창의(白幘衣)와 백화(白靴)를 착용하는 풍습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한 기록이 있다.

1) 창의(幘衣)

조정에서 관리들의 백창의 착용문제는 정조 17년(1793)에 주로 언급되었다.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정조실록』에 등장한 것은 10월 11일에 비변사에서 창의 제도를 바로잡아야한다고 언급할 때이다.

“창의(幘衣)는 비록 평상시[燕居]에 입는 옷이기는 하나, 그 역시 조정 관원들의 복장인데 공복의 안[公服之裏]은 이미 청색을 쓰면서 집안에서는 꼭 백색을 착용하니, 이 또한 뒤섞였을 뿐만 아니라[斑駁] 한갓 낭비거리만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조(先朝)에서도 일찍이 백의(白衣)를 엄금하였으니 이렇게 의장(衣章)을 바로 고치는 때에 더욱이나 백창의[白幘]는 영원히 금지하여 습속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¹⁴⁾”

‘公服之裏’이라는 구절에서 ‘裏’는 안감 또는 받침 옷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최은수¹⁵⁾의 연구에 따르면, 정조연간의 단령은 안감으로 제작된 직령을 정거서 입는 형식이다. 따라서 ‘裏’는 안감역할을 하는 직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색 안감은 초상화에서도 다수 확인할 수 있어서, 《서매수 초상》

〈그림 1〉¹⁶⁾에서는 고름과 수구 안쪽, 단령의 옆트임에서 볼 수 있으며, 《채제공 초상》〈그림 2〉¹⁷⁾에서는 고름 및 앞자락 안쪽 뿐 아니라 분홍색 단령에 전체적으로 청색이 은은하게 섞여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1〉 《서매수 초상》
작자 미상, 1792년
- 조선시대 초상화 II, p. 135



〈그림 2〉 《채제공 초상》
이명기 외, 1792년
- 군자의 삶, 그림으로 배우다, p. 34

백창의에 관한 정조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은 비변사의 건의가 있고 며칠 후인 10월 20일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좌의정 김이소 등에게 전교하기를, “창의(淸衣)를 청색으로 하자는 것과 소매를 넓게 만드는 폐단에 대해 영상(領相)의 초기(草記)에 부주(附奏)가 있었는데, 대저 창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위에서 지시할 일이 아니다. 만일 법령으로 정하였다가 준수하지 않아 실행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법령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다. 선조(先朝)에서 휘항(揮項)을 금지했던 일이나 연전에 있었던 철리의 일을 보면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경들이 몸소 솔선하여 입는다면 모방을 잘하는 지금의 풍조로 볼 때 풍속이 일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김이소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대저 창의도 조의(朝衣)의 하나이면서 집에서 일상 입는 옷도 겸하게 되니 사람마다 청색과 백색 두 벌을 반드시 갖추어 두고, 공무에 나갈 때는 청색을 입고 집에 있을 때는 백색을 입습니다. 그 이유를 캐 본다면 대체로 우리나라 풍속이 백색을 숭상하는 데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백색을 바꾸어 청색으로 한다면 예제(禮制)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아마 번잡함을 더는 데도 일조가 될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오늘부터 몸소 솔선하여 착용하겠으며, 혹 상복(喪服)을 입게 되면 백주의(白周衣)를 만들어 입을 것입니다.”¹⁸⁾

창의를 청색과 백색, 두 가지 색으로 준비하여 공무에 나갈 때는 청색, 집에 있을 때는 백색으로 입는다는 내용은 위의 기록 뿐 아니라, 홍석주의 『학강산필(鶴岡散筆)』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⁹⁾ 정조도 신료들의 의견처럼 백창의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법으로 금제(禁制) 대신에 양반사대부들의 '솔선수범'을 들었다. 즉, 윗사람들이 본인의 집에서부터 백창의가 아닌 청창의를 입는 모습을 보이면 일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따를 것이라고 하였다. 동년 11월 18일에도 전국적인 백창의 금제를 내리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가난한 선비와 백성들은 용도에 맞게 염색하여 입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완벽하게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나 부유한 사대부가에서는 청의를 입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이러한 내용의 비지(批旨)를 조보(朝報)에 반포하도록 하였다.²⁰⁾ 유득공의 『고운당필기(古芸堂筆記)』에 계축년(1793) 겨울 이후로 추정되는 비변사의 통지내용이 있는데, 여기

에 청창의 착용대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있다.

“비변사에서 각 아문·군문 및 한성부에 통지하여 모든 문과·음보·무과 출신의 조정 관료, 정·잡과에 합격한 사람, 내시·의관·역관, 군교·금려(禁旅)·잡기(襍技), 당상인은 말할 것도 없이 관청에 나오거나 집에 있을 때나 모두 청창의를 입고, 서리와 아전이 단령과 직령을 입어야 할 때에는 그 받침옷[裏衣]도 청색을 쓰도록 하였다.”²¹⁾”

유득공의 기록에 따르면, 비변사에서는 실록의 내용 보다 넓은 계층의 백성들에게 청창의를 권한 것으로 생각된다.²²⁾ 현직 고위관료 뿐 아니라, 내시·의관·역관, 기술직 관리인 잡기(襍技) 등의 하급 관리까지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한 서리와 아전의 단령·직령에 대한 받침옷도 청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앞서 10월 20일에 있었던 백창의 논의는 같은 날짜의 『일성록』기사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 신하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다짐을 이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어사 이문원은 아뢰기를, “신은 혹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청창의를 입는데, 신들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연소한 유생들이 중치막[中赤幕]을 다 염색해서 입었습니다.” (중략)
홍낙윤이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하교대로 영중추부사 체제공에게 가서 전하였더니, ‘청창의의 일은, 신이 이에 앞서 평상시에 청색을 많이 입었는데

하물며 지금 연석에서 하교하시는 데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집사람들에게 분부하여 백창의를 영구히 없애게 하고 청색을 입고 지낼 것이며, 친한 이가 와서 만날 때도 이렇게 타이르면 힘들이지 않고도 절로 명령이 행해질 것입니다.’ 하였습니다.”²³⁾”

이문원(李文源, 1740~1794)은 신하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 유생들이 중치막을 염색하여 입었다고 하였고, 이문원과 체제공(蔡濟恭, 1720~1799) 모두 자신들은 평상복으로 청창의를 입는다고 하였다. 백의 금지를 숙종 17년(1691)에 신칙(申飭)하고²⁴⁾, 영조 2년(1726)과 14년(1738)에도 명령을 내렸으며, 이문원이 영조 16년(1740)생임을 고려하면 당시 금제가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었으며, 정조연간에도 이를 계속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연간의 청창의 착용 권고결과에 대해서도 홍석주는 “이에 도성의 세족 집안에서도 중의(中衣, 속칭 中致幕)를 청색으로 많이 하였다.”²⁵⁾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학규(李學逵, 1770~1835)가 『낙하생집(洛下生集)』에서 정조연간의 청의(靑衣) 풍습에 대하여 “몇 년 후에 점점 옛 모습이 되어 지금은 다시 청의를 입는 사람이 없다.”²⁶⁾고 하였고, 19세기말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백의 풍습을 인상 깊게 기록한 것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백의 착용이 전반적인 풍습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화성능행도 8곡병》 〈환어행렬도〉
(남자군중 부분)
김득신 외, 1796년
- 조선화원대전, p. 25



〈그림 4〉 《기로세련계도》
(부분)
김홍도, 1804년
- 조선화원대전, p. 147

회화자료 중에서 정조연간으로 제작연대가 명확하고 백성들의 전체적인 복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은 《화성능행도 8곡병》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병풍은 정조 19년(1795)에 정조가 부친 장헌세자의 묘소가 있는 수원에 행차했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인데, 김득신(金得臣, 1754~1822) 등의 화원 7명이 제작에 참여하여 이듬해인 정조 20년(1796)에 완성하였다. 따라서, 청장의 착용 권고가 있는지 2년 후의 행사를 기록한 자료가 된다.

이중에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는 화성에서 출발하여 한양으로 향하는 일정 중 시흥의 행궁에 숙박하러 들어가는 모습이다.²⁷⁾ 시흥은 현재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으로, 당시에는 경기도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행렬 주변의 구경꾼 중에 흑립을 쓴 남자들은 포(袍)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3)²⁸⁾ 이 겉옷이 모두 창의를 아니겠으나 남자들의 복색(服色)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참고할 때, 포의 색상은 크게 백색 또는 청색 계통으로 이분(二分)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담황색·담청색·진청색 등으로 농담이 다양하다. 그러나 바지는 모두 백색으로 동일하며, 이러한 바지 착용 모습은 김홍도의 작품으로, 순조 4년(1804)에 개성에서 있었던 계회를 기록한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契圖)》(그림 4)²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 《기로세련계도》에서는 포의 색상으로 백색·청색 외에 담황색의 비중도 높고 녹색도 일부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보인다.

2) 화(靴)

정조연간에는 백장의와 함께 백화도 착용 논의가 있었다. 정조 2년(1778)에 조정 관료들이 백화를 신고 궁궐에 들어오는 풍습을 금하였는데, 이 내용은 『정조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별로 기록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정조실록』은 “조신(朝臣)들이 백화(白靴)를 신고 입궐하는 잘못된 풍습을 금하였다.”³⁰⁾는 짧은 내용이 전부인 반면, 『승정원일기』에는 착용 풍습이 자세하게 표현되어있으므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금이 말씀하시기를, “근래에 조신들이 입궐할

때는 모두 백화를 신고, 입시(入侍)할 때에야 비로소 흑화를 신는데, 이는 고례(古例)가 아니다. 이미 조의(朝衣)와 조관(朝冠)을 착용하였는데 신발에서는 어찌하여 다른 색인가? 이것은 신척하지 않을 수 없다.”

홍국영이 아뢰기를, “조의 아래에 백화를 신는 것은 매우 눈에 거슬리는데 근래에는 이미 규례(規例)가 되어 조반(朝班)은 아무도 흑색을 신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번 신척하시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³¹⁾”

관료들이 입궐할 때는 백화를 신고, 입시할 때에야 흑화를 신었다는 것은, 본인의 집에서 궁궐에 올 때까지는 백화를 계속 신고 있었다가, 입금을 벌 때에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흑화를 갈아 신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관복에는 흑화를 신는 것이 정식이지만 백화를 신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15년 후인 정조 17년에 백장의를 논의하면서, 백화를 신는 풍습도 다시 언급된다.

“행 사직(行司直) 이문원(李文源)이 아뢰기를, “공복에는 순전히 흑화(黑靴)를 신으면서 편복(便服)에는 간혹 백화(白靴)를 신기도 하여 전혀 의의가 없습니다. 능에 제향할 때 천담복(淺淡服)에 오모(烏帽)와 오대(烏帶)를 착용하였으니 오화(烏靴)를 신는 것이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뒤로는 공복과 사복을 따지지 말고 백화는 영구히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중략) 흑화의 일은 궐문 안에서는 금령이 이미 있고 못사람 눈에도 익숙하다. 그리고 머리와 발을 어찌 달리하겠는가. 경의 말이 매우 좋으니 지금부터는 백화를 일절 엄금하라.”³²⁾”

『정조실록』에 기록된 정조 17년의 논의에서는 공복에는 항상 흑화, 편복에는 흑화 또는 백화를 신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문원은 편복에 흑화와 백화를 섞어 신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정조도 백화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문헌별로 약간 기록이 다른데, 『정조실록』에서는 “自今白靴 一切嚴禁”으로 “지금부터는 백화를 일절 엄금하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는 “自今以純色造靴者 一切嚴禁 可也”이므로 “지금부터는 순색으로 화(靴)를 만드는 것을 일절 엄금하라.”로 금지의 대상과 강도가 다르다. 『정조실록』의 내용이나 다른 문헌의 문맥상으로도 여기에서 순색은 백색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순색과 백색이 항상

동일어인지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유득공은 백화의 착용 풍습에 대하여, “옛날의 사대부 평복은 천담복으로 모두 백화(白靴)를 신었다.”³³⁾ 라고 하였다. 따라서 관복 뿐 아니라 평복에도 화(靴)를 신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도 정조연간의 색상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흑단령에는 흑화를 신었다. 시복(時服)에는 백화를 착용하였는데 정묘조에서는 흑화를 병용하였으니, 시복에 백색으로 하던 안감[內拱]을 청색으로 하였기 때문이다.”³⁴⁾

『일득록』에도 ‘흑단령에는 반드시 흑화, 시복에는 반드시 백화’를 착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³⁵⁾, 이유원의 기록에 따르면 시복에는 흑화와 백화를 병용하였고, 그 이유로 안감 색상의 변화(백색→청색)를 들었다. 시복은 시대별로 색상이 변화하여 학계에서 그 과정을 계속 연구중으로³⁶⁾, 박현정³⁷⁾의 연구에 따르면 『속대전(續大典)』(영조 22)에 당상관은 담홍색, 당하관은 홍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전통편(大典通編)』(정조 9)에는 당상관은 담홍색, 당하관은 청록색이다. 그리고 이 규정이 고종 21년(1884) 갑신외제개혁까지 준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정조연간에 당상관의 시복은 담홍색이고, 여기에 백화를 신었던 것은 연한 색 관복에는 흑화보다는 백화가 더 어울린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임하필기』의 집필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정의 백화 금지와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정조연간의 변화에 대한 기록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여자복식

1) 문헌자료에 나타난 기록

이옥은 「봉성문여」에서 영남 우도 외의 지역에 대하여 “여자들은 치마를 소중히 여기는데, 더욱 백색을 꺼려서 홍색과 남색 이외에는 모두 청색 치마를 두른다. 의는 한 가지 색이 아니지만 삼년복이 아니면 또한 일찍이 백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지 않았다.”고 하였다.³⁸⁾ 정조연간에 부녀자의 복식 중에서 가채

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평상복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관찬사서에서는 그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문헌자료 중에서는 문집을 주로 참고하였다. 그중에서 정조연간에 검서관으로 유명하였던 이덕무는 『사소절(士小節)』(영조 51)에서 부인들의 치마 착용풍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요즘 부인들은 담색(澹色) 치마를 즐겨 입어서, 거의 젊은 과부가 입는 옷과 심하게 다르지 않다. 또 짧고 작은 백색 치마를 먼저 입어서 치마를 부풀린다. ‘무족오합(無足五合)’·‘칠합(七合)’ 등의 이름이 있다. 젊은 과부[孀婦]의 복식은 담소(澹素)를 핑계로 청초[鮮楚]하게 하니, 이것이 어찌 ‘미망인’이라고 일컫는 의의겠는가?³⁹⁾”

당시에는 일반 부인들에게 젊은 과부의 것과 비슷할 정도의 옅은 색 치마가 유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 검소하면서도 단정하게 백색 저고리와 치마를 손질하여 입은 젊은 과부와 같은 옷차림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치마를 부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작은 백색 치마는 이희경(李喜經, 1745~1805 이후)의 『설수외사(雪岫外史)』(순조 5)에 있는 ‘무족상(無足裳)’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희경은 세 층으로 만들고 길이에 따라 ‘칠합·오합·삼합’으로 부른다고 하였다.⁴⁰⁾

김려의 시집인 「황성이곡(黃城俚曲)」은 그가 순조 17~19년(1817~1819)에 충청남도 연산에서 현감으로 재직할 때와 사임 직후에 읊은 시를 모은 것으로, 친구 이옥처럼 풍속에 관심이 많고 소품체를 구사하였던 그의 특성상 옷차림 묘사도 종종 등장한다. 여기에서 부녀자들은 청색 또는 남색 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표현된다.

“○ 목면 청치마에 짧은 속바지
靑木棉裙短布褲
계전땅 각시들은 눈물 삼키네⁴¹⁾
癸田閨氏淚潛吞
○ 목면 남치마 입은 갓마을 젊은 아낙
浦村少婦木藍裳
눈썹은 그리지 않고 분단장도 수수해라⁴²⁾”
淡掃蛾眉淡淡粧

김려는 이보다 앞서 순조 1~6년(1801~1806)에

영남 진해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는데, 진해의 풍속을 읊은 시에는 젊은 부녀자의 모습으로 옥색[縹] 치마가 표현된다.

“포구의 젊은 아낙 넓게 화장하고
浦家少婦紅粧
백모시 단삼에 옥색 모시치마 차려 입었네43)”

白苧單衫縹苧裳

2) 회화자료에 나타난 기록

당시의 회화를 살펴보면 《화성능행도 8곡병》중 〈환어행렬도〉에서 부녀자들 대부분이 다양한 농담(濃淡)의 청색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저고리 색상은 백색·분홍색·녹색·갈색 등으



〈그림 5〉 《화성능행도 8곡병》 〈환어행렬도〉(여자군중 부분)
김득신 외, 1796년
- 조선화원대전, p. 25



〈그림 6〉 《모당 홍이상 평생도》 〈회혼식〉(부분)
김홍도, 1781년
- (朝鮮時代) 風俗畫, p. 92

〈표 1〉 《단원풍속화첩》에 나타난 부녀자 복색(服色)

연번	유물명칭	인원수 (명)	저고리	치마	기타
1	자리짜기	1	백색	청색	
2	점괘	2	백색	청색	속바지: 백색 장옷: 녹색
3	나들이	1	백색	청색	장옷: 녹색
4	주막	1	백색	청색	
5	빨래터	4	백색	청색, 백색	속바지: 백색
6	나룻배	2	백색	청색	속바지: 백색
7	장터길	1	백색	청색	속바지: 백색
8	우물가	3	백색, 회갈색	청색, 회갈색	속바지: 백색
9	신행	1	백색	청색	속바지: 백색 장옷: 녹색
10	길쌈	3	백색	청색, 회갈색	속바지: 백색
계		19			



〈그림 7〉 《단원풍속화첩》 〈나룻배〉
김홍도, 조선
- (朝鮮時代) 風俗畫, p. 190



〈그림 8〉 《해원전신첩》 〈노상탁발〉(부분)
신윤복, 조선
- 潤松文華 第59號, p. 65

로 다채롭다.〈그림 5〉⁴⁴⁾ 이보다 앞서 제작된 《모당 홍이상 평생도(募堂洪履祥平生圖)》(정조 5)에서는 치마 색상으로 청색 외에 적색·녹회색 등도 볼 수 있으며, 건물 내부에 있는 부녀자들의 치마는 진한 색,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연한 색이다.〈그림 6〉⁴⁵⁾

정조연간에 활동한 동일 작가의 작품으로 여러 점이 실존하는 대표적인 풍속화로는 김홍도, 신윤복의

화첩을 들 수 있다. 《단원풍속화첩(檀園風俗畫帖)》은 25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부녀자 19명의 복색을 살펴보면, 저고리는 대부분 백색(18명), 치마는 청색(15명), 속바지는 백색, 장옷은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다.〈표 1〉⁴⁶⁾ 특히 비좁은 나룻배〈그림 7〉⁴⁷⁾에서도 치마는 청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단원풍속화첩》이 소박한 서민의 모습을 그린 회화라면, 《해원전신첩(蕙園傳神帖)》은 부유한 양

반과 기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혜원전신첩》은 30면으로, 저고리 색상은 백색·담청색·분홍색·연두색·황색, 치마는 백색·담황색·청색·적색, 속바지는 백색·담황색, 장옷은 백색·녹색 등으로 훨씬 다양하다. 치마 색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청색 계통이며, 김홍도의 풍속화와는 달리 한화면에서도 청색의 농담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8>⁴⁸⁾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청색이 남색과 흑색을 포함하는 색상일 경우도 많아서⁴⁹⁾, 회화자료만으로 이옥이 언급한 것처럼 청색과 남색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IV. 백색복식에 대한 인식

백색복식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하여 백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도 살펴볼 수 있다. 백창의 경우, 조정에서 금지 근거로 언급된 것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선왕대에 백의 금지가 있었다. 둘째, 청창의로 통일하는 것이 예제(禮制)에도 부합하다. 셋째, 용도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여 갈아입는 것은 번잡하고 여러 벌을 갖추게 되어서 낭비다.⁵⁰⁾

첫째 이유로 선왕대의 백의 금제를 따른다는 것은 숙종·영조대에도 반복된 근거이다.⁵¹⁾ 따라서 이것은 금제 부활을 언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거라고 할 수 있다. 영조연간에는 영조 2년(1726)에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청색을 숭상해야 한다는 근거로 백의 금제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논리는 영조 14년(1738), 영조 43년(1767)에도 계속된다.⁵²⁾ 둘째 이유인 예제에 부합한다는 것은 상중이 아닌데 상복색인 백색 옷을 착용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이유는 실용적인 측면을 부각한 것인데, 영·정조연간에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풍족해졌다고는 하지만, 정조연간에도 흉수·가뭄·흉년 등의 어려움은 여전하였고⁵³⁾, 검소를 숭상하는 조선시대의 이념상 옷차림의 사치도 끊임 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⁵⁴⁾ 조정에서는 관리들이 백색·청색 창의를 각각 갖추는 것이 낭비이기 때문에 청색으로 통일하도록 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영조 2년(1726)에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백의 금

제를 반대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끈다.

“빈인한사(貧人寒士)는 일 년에 옷 한 벌을 지어서 길사와 흉사에 통용하여 입습니다. 지금 평상복을 청색으로 하면 흉사에 청색으로 입할 수 없어서 당당하게 자부하고자 하는 이들은 두 벌을 마련할 것이고, 힘이 미치지 못하면 청색으로 흉사에 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예의를 어기고 교화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백색으로 길사에 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 심한 것입니다. 추포(麤布)와 얇은 면[薄綿]은 염색하기에 마땅하지 않으니, 부유한 자, 관직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정세(精細)한 것을 취할 것이고, 빈인한사도 이를 따르고 본받고자 할 것이므로 재물을 소모하고 사치를 숭상함이 어찌 그 끝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사치를 경계하려 하심이 오히려 사치로 이끄는 것이니, 신은 성려(聖慮)에 잃음이 있어서 상세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⁵⁵⁾”

한원진의 상소문에 따르면, 당시에는 일 년에 백색·청색으로 옷을 각각 한 벌씩 마련하는 것이 힘들었던 계층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흉사에는 백의’라는 사회통념상 청색 옷을 흉사에 입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백색 옷을 따로 한 벌 더 마련하고, 염색하기에 적당하도록 좋은 옷감을 무리해서 마련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의 사치라고 지적하였다. 사회적 용도에 따른 백의의 경제성을 언급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정조연간에도 임금과 체제공 모두 가난한 선비는 백색을 청색으로 물들이는 비용을 구하기 어렵다는 언급을 하고⁵⁶⁾, 초계문신들의 군복차림에 대하여 정조가 “한 사람이 입는 군복이 거의 중인(中人) 열 집 재산에 해당한다.”⁵⁷⁾는 비유를 사용하며, 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북학의(北學議)』(정조 2)에서 조선의 가난을 묘사할 때 “새 옷을 하나 걸치면 못사람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흑시 기생이 되었다보다 의심한다.”⁵⁸⁾고 한 것을 보면, 백성들의 살림은 어려웠고 빈부격차가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조 17년의 청창의 논의에 상복(喪服)으로는 별도로 백색 주의(周衣)를 마련한다고 하였고, 정조의 성덕(聖德)을 칭송한 홍석주도 상복으로 청창의를 입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 것을 보면⁵⁹⁾, 흉사에는 백의를 입어야 한다는 통념 역시 유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사람들이 평상복으로 백의를 입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정조실록』과 『학강산필』 모두 '백색 숭상[尙白]⁶⁰⁾'이며, 『일득록』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이 기자(箕子)의 유속(遺俗)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기록되어 있다.

“은(殷) 나라 사람들이 백색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백색을 숭상하는 것이 또한 기자(箕子)가 남긴 습속에서 말미암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신라의 국경은 본래 기자에게 봉한 땅이 아니었는데 경주의 예진 습속에 또한 백색을 많이 숭상하였다. (중략) 이는 후세의 습속이 숭상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만든 것에 불과하며, 최근 몇 년 이래로 이러한 폐단이 더욱 심하여 평상복으로 입는 창외나 중치막과 같은 것까지도 청색으로 물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들어 보지 못하였으니, 또한 말속(末俗)의 폐습이 될 만하다.⁶¹⁾”

백색 숭상을 기자와 연관 짓는 경우는 영조 2년에 있었던 한원진의 상소와 영조 43년의 백의에 대한 임금의 비판, 이학규의 『낙하생집』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⁶²⁾ 그중에서 이학규가 연원을 추측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국 풍속이 백의를 숭상한 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건대 은 탕왕께서 금덕(金德)으로 왕이 되어 색은 백색을 숭상하였고, 기자께서 은나라 사람으로 조선에 봉해져 역시 백성에게 백의를 입도록 가르치신 것이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⁶³⁾”

기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문헌에 따라 차이가 커서 사실로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조선시대에는 국초부터 기자조선(箕子朝鮮)이 중시되었고, 16세기에는 재야 사림(士林) 사이에 기자숭배가 널리 퍼졌다. 후기에는 주자(朱子)의 설(說)에 영향을 받아 기자조선을 정통국가의 시작으로 설정하는 체계가 수립되었다.⁶⁴⁾ 따라서 사대부 중에는 백색 숭상이라는 관념에 대해서도 기자와의 관련성을 중시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백의 풍습에 부정적이었던 영조와 정조는 모두 이러한 연관성을 부정하였고, 유득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백의를 입기 좋아하지만 의도한 것이 아니며 백의는 더러움을 타기 쉬워서 빨래

하고 풀 먹이고 다듬이질하는 수고가 염색하는 것의 몇 갑절은 될 것이라고 서술하였다.⁶⁵⁾ 당시에 옷을 손질하는 공력은 『사소절』에 잘 나와 있다.

“남자의 옷을 빨았는데도 때가 아직 남아 있고, 꿰맨 곳이 터지고, 풀찌꺼기가 붙어 있고, 다리미불에 구멍이 나고, 구겨지거나 얼룩지고, 넓고 좁음이 척도가 없는 것은 부인의 책임이다. 이상의 일은 사치를 목적으로 함이 아니라, 곧 공력을 들이게 하려는 것이다. 비단을 계란처럼 반지르르하게 광택을 내고, 베를 매미 날개처럼 곱게 다리는 것은 사치를 위함이 아니라, 곧 공력을 들이는 것이다. 실을 뽑고 솜을 다며, 옷을 다리고 비단을 다듬이질하는 일은 비록 몸종이 있더라도 손수 익혀야 한다.⁶⁶⁾”

위 글에 따르면, 세탁·바느질·푸새·다리미질 등의 여러 과정이 필요한 옷 손질은 부인의 관할이었고, 몸종이 있는 집에서는 몸종이 그 일을 대부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덕무는 사치 배격을 강조하였고, 본인의 살림살이도 어려웠던 인물임에도 옷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입는 것은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근대기의 백의 비판에서 “이 흰빛 때문에 일평생의 대부분을 희생하는 것은 조선여성들이다.”⁶⁷⁾, “조선여성은 의복의 세탁과 재봉사업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다.”⁶⁸⁾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의복손질의 어려움을 강조한 반면 조선시대, 적어도 정조연간에 대부분의 남성들에게는 인식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녀자의 당연한 본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득공의 경우, 이를 글로 표현할 정도였던 것은 전통적인 덕목인 효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나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샅바느질로 외동아들인 유득공을 어렵게 키웠기 때문에⁶⁹⁾, 옷 손질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실용성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도 진행되었을 경우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후대 자료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V. 맺음말

우리나라 백성들이 대부분 청의를 입는다는 이옥의 언급에 의문을 가지고 정조연간의 백색복식 착용풍습을 조사해본 결과, 조정에서 관리들이 착용하는 창의 색상을 백색에서 청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백화를 금지하고 흑화를 착용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옥이 정조 23(1799)~정조 24년(1800)의 견문을 토대로 기술한 글인 「봉성문여」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의를 착용한다고 할 정도라면 정조 17년의 청장의 권고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가체를 금지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풍속을 일시에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여 백의에 대해서 강제적인 금제 보다는 사대부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였고⁷⁰⁾, 이는 일정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후대의 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영조 2년(1726)에 정형익(鄭亨益, 1664~1737)이 “병진~정사(1676~1677) 연간에는 사대부집 아이라도 모두 청포(靑袍)를 입었으나, 오래지 않아 폐습이 돌아왔다.”⁷¹⁾고 한 것처럼 전국적인 청의 착용 풍습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조가 얼마 후인 재위 24년 되던 해 6월에 사망했으므로, 백성들은 상복으로서의 백의를 전국적으로 입었을 것이다.

백색복식에 대한 조정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음양오행설과 예제(禮制) 외에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게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득공은 의복 손질의 어려움이 염색의 수고보다 더하다는 의견을 남겼지만, 염색에 따른 비용은 가난한 집안에 큰 부담이었고, 이것이 전국적인 금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빈부격차도 컸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상제례가 중시되는 사회분위기에서 의복 제작비나 염색비가 부담되는 계층이 많았다면, 다양한 용도로 입을 수 있는 백의가 선호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기자조선을 중시 하였던 사대부들에게는 백의풍습이 기자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이해된 것을 볼 때, 백의를 입는 이유는 계층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백의가 이처럼 널리 착용됨에 따라서, 백의로 미

의식을 표현하는 방법도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옷감을 윤기 있게 손질하고, 옷을 땀이 있게 다림질하며, 의복의 주조색인 백색에 어울리도록 신발 등의 부속물을 갖추었으며, 청초한 멋이 유행하여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일부러 담색(淡色) 옷을 입는 풍조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자의 경우에는 이옥의 말처럼 백색 보다 청색 치마의 착용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여자들이 상하의를 모두 백색으로 입는 것은 좀 더 후대일 것으로 보인다.

영남 우도만의 백의 선호 풍습의 원인을 유추해보면, 영남 좌도 보다 부유한 지역이므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검소함을 중시하는 남명학파의 영향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학파의 시조인 조식이 명종 10년(1555)의 상소에서 백의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⁷²⁾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므로 시대적인 변화와 기타 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근대기에는 신문·잡지 등의 대중매체에서 백의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알려진 자료가 풍부하고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반면, 조선시대의 백의에 대해서는 금제가 거듭되었어도 효과는 미약했다는 전체적인 모습만 파악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 정조연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이 시기만으로도 백색복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정조연간 이후에서 근대 이전까지의 구체적인 백색복식 착용양상도 살펴보면 백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로드니 홀 편 (2004), *호주 사진작가의 눈을 통해서 본 한국 1904*, 서울: 교보문고·호한재단, pp. 43-131;
서울대학교박물관 편 (2004), *그들의 시선으로 본 근대*, 서울: 눈빛, pp. 19-96;
국립민속박물관 편 (2006), *(1906~1907) 한국·만주·사할린)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pp. 140-249.
- 2) 최남선 (1946), *朝鮮常識問答*, 서울: 東明社, p. 47. 第四風俗;
하원호 (2001), 겨울, “흰옷과 상투”, *내일을 여는 역사*, pp. 32-35;
송기호 (2009), *시집가고 장가가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150-165. 흰옷과 치마저고리.

- 3) 소황옥 (2000), 백의 복식 착용의 비교연구 - 한·중·월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18, pp. 75-84;
김영인 (2006), 한국인의 백의풍속(白衣風俗)에 내재된 미의식, *복식*, 56(7), pp. 1-17;
서봉하 (2014), 한국에서 백의호상 현상이 고착된 배경에 관한 논의: 유장선의 백의고를 중심으로, *복식*, 64(1), pp. 151-163.
- 4) 陳壽 撰, 裴松之 注解 (1975), *(標點校勘) 三國志: 全*, 景仁文化社 刊, 서울: 景仁文化社, p. 841.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夫餘. “在國衣尚白, 白布大袂袍袴履革鞜.”
- 5) 최공호 (2009), 흰옷의 색채인식과 근대의 백색담론 - 素白色 한복의 민족 정체성 문제-, *전통의생활연구* 3, pp. 22-23;
최지희, 홍나영 (2013), 이옥의 글에 나타난 18세기 조선시대 복식, *복식*, 63(5), pp. 26-27.
- 6) 영조실록, 2년(1726) 10월 8일(병인):
Ibid., 14년(1738) 8월 16일(병신):
Ibid., 43년(1767) 6월 27일(기미).
- 7) 이옥 (2009a), *(완역) 이옥 전집 2*,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서울: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p. 166.
文餘1 鳳城文餘 追記南征始末.
- 8) *Ibid.*, p. 51.
文餘1 鳳城文餘 白衣裳. “我國色尚青, 民多衣青衣. 男子非裕與衲, 未嘗無故白衣, 女子以裳爲重, 尤忌白, 紅藍以外, 皆繫青裙. 衣不一色, 非持三年服, 則亦未嘗無故白衣裳. 獨嶺南之右, 男女皆衣白, 婦女雖新婦者, 亦白衣白裳. 余初到, 見小婦多頭不帶鬘, 着木棉白短裙, 疑其孀, 皆新婦而飾者也. 惟妓及巫女, 衣青衣裙. 其人, 蓋賤青而尚白.”
- 9) 이증환 (2005), *(국학문대역) 택리지*, 이민수 역, 서울: 평화출판사, pp. 86-90.
- 10) 李樹健 (1995),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서울: 일조각, pp. 327-333.
- 11) 이옥 (2009b), *(완역) 이옥 전집 1*,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서울: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pp. 342-345. 記 南程十篇 敘文.
- 12) 이옥 (2009a), *op. cit.*, pp. 109-110.
文餘1 鳳城文餘 市記.
- 13) 영조실록, 2년(1726) 10월 8일(병인):
Ibid., 14년(1738) 8월 16일(병신):
Ibid., 43년(1767) 6월 27일(기미).
- 14) 정조실록, 17년(1793) 10월 11일(신미).
- 15) 최은수 (2004), 조선시대 百官의 團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7-88.
- 16) 국립중앙박물관 편 (2008), *朝鮮時代 肖像畫 II*, p. 135.
- 17) 조인수 (2013), *군자의 삶, 그림으로 배우다*, 파주: 다섯수레, p. 34.
- 18) 정조실록, 17년(1793) 10월 20일(경진).
- 19) 홍석주, *鶴岡散筆* 卷之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東人尚白, 其敝衣亦以白, 雖直宿禁中者亦然, 每赴公, 另具青色者, 以待有命, 進見則顛倒而改之.”
- 20) 정조실록, 17년(1793) 11월 18일(정미).
- 21) 유득공 외 (1986), *雪岫外史 外 二種*, 이우성 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p. 127.
古芸堂筆記 青氈衣. “自備局, 知委諸衙門諸軍門及漢城府, 凡文武朝士, 正襍科出身, 內侍醫譯, 軍校禁旅襍技, 堂上人無論, 赴公杜家, 皆着青氈衣, 吏胥當服團領直領者, 其裏衣亦用青.”
- 22) 현존하는 『비면사등록』에는 정조 17년 7월에서 정조 18년 6월까지의 기록이 소실되어 정확한 비교 확인이 어렵다.
- 23) 일성록, 정조 17년(1793) 10월 20일(경진).
- 24) 숙종실록, 17년(1691) 3월 4일(경인).
- 25) 홍석주, *op. cit.*
俗之五. “於是, 都下世族之家, 亦多青其中衣, 中衣者, 俗所稱中致慕也.”
- 26) 이학규 외 (2002),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290*, 민족문화추진회 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623.
洛下生集 冊二十 東事日知 青衣. “正廟十六年, 復禁着白衣. 行之數年, 稍稍仍舊, 今無復着青衣矣.” 정조 16년은 17년의 誤記인 것으로 생각된다.
- 27) 삼성미술관 Leeum 편 (2011), *조선화원대전*, p. 358.
- 28) *Ibid.*, p. 25.
- 29) *Ibid.*, p. 147.
- 30) 정조실록, 2년(1778) 5월 4일(계해).
- 31) 승정원일기, 정조 2년(1778) 5월 4일(계해).
- 32) 정조실록, 17년(1793) 10월 20일(경진).
- 33) 유득공 외 (1986), *op. cit.*, p. 127.
古芸堂筆記 青氈衣. “舊時, 士大夫平服, 淺淡服, 皆着白靴.”
- 34) 이유원 (2000), *임하필기 6*,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13.
卷二十八 春明逸史 靴子變通. “古黑團領着黑靴. 時服用白靴, 正廟朝並用黑靴, 因時服內拱之以白爲青故也.”
- 35) 정조대왕 (2000), *홍재전서 16*,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420.
卷百六十九 日得錄九 政事四. “黑團領之必穿黑靴, 時服之必穿白靴, 未知創自何時, 而本非典禮所載.” 정조 20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조실록』·『승정원일기』 등의 다른 문헌과 비교해볼 때 정조 17년으로 보는 것으로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 36) 최지희, 홍나영 (2003), 「기영회도」에 나타난 16세기 복식에 관한 연구: 남자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53(3), p. 125;
이은주 (2005), 조선시대 백관의 時服과 常服 제도 변천, *복식*, 55(6), pp. 38-50.
- 37) 박현정 (2012), 조선 후기 시복제도 연구, *한국의류학 회지*, 36(7), pp. 771-772.
- 38) 이옥 (2009a), *op. cit.*, p. 51.
文餘1 鳳城文餘 白衣裳.
- 39) 이덕무 (1980), *청장관전서 II*,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26.
士小節 卷之六 婦儀 服食. “近日婦人, 喜着澹色之裳, 幾與孀婦所服不甚異也. 又先着短小白裳, 然後繁裳也. 有無足五合七合等之號.” “孀婦之服飾, 藉澹素而致鮮楚, 是豈稱未亡人之義也哉.”
- 40) 이희경 (2011), *(부록 또 하나의 보고서) 설수의사*, 진재교 외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 56.

- “裳內又有裳，名曰無足裳，作三層繁之。長者至脛，中者至膝，小者至脇。是故有七合五合三合之稱。”
- 41) 오히복 (1990), 김려작품집에 대하여, *김려작품집*, 평양: 문예출판사, p. 15;
김려 외 (2002),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289*, 민족문화추진회 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409. 滯庭遺藁 卷之二 艮城春嚙集 黃城俚曲.
- 42) 김려 외 (1963), *풍요선집*, 리용악·김상훈 역,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p. 386;
김려 외 (2002), *op. cit.*, p. 417. 滯庭遺藁 卷之二 艮城春嚙集 黃城俚曲.
- 43) 김려 (2007), *유배객, 세상을 알다 - 김려 산문선*, 강혜선 역, 파주: 대학사, p. 106;
김려 외 (2002), *op. cit.*, p. 515. 滯庭遺藁 卷之八 牛海異魚譜.
- 44) 삼성미술관 Leeum 편 (2011), *op. cit.*, p. 25.
- 45) 국립중앙박물관 편 (2002), *(朝鮮時代) 風俗畫*, p. 92.
- 46) 표의 색상은 『(朝鮮時代) 風俗畫』(국립중앙박물관 편, 2002)를 기준으로 하였다.
- 47) *Ibid.*, p. 190.
- 48) 韓國民族美術研究所 편 (2000), *潤松文華 第59號*, pp. 54-73;
韓國民族美術研究所 편 (2002), *潤松文華 第62號*, pp. 98-105.
《혜원전신첩》에 표현된 복식의 색상은 濃淡이 다양해서 인쇄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모든 작품을 한 권에 수록한 자료집은 찾을 수 없어서 별도의 표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 49) 이은주 (1994), 한국전통복식에서의 청색과 흑색 - 청색의 범주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1)*, p. 123.
- 50) *장조실록*, 17년(1793) 10월 11일(신미).
- 51) *숙종실록*, 2년(1676) 11월 13일(신묘).
- 52) *영조실록*, 2년(1726) 10월 8일(병인):
Ibid., 14년(1738) 8월 16일(병신):
Ibid., 43년(1767) 6월 27일(기미).
- 53) *장조실록*, 16년 6월 2일(기사):
Ibid., 16년 10월 14일(기묘):
Ibid., 18년 9월 30일(갑인) 등.
- 54) *Ibid.*, 15년 4월 18일(임술):
Ibid., 18년 3월 29일(병진):
Ibid., 18년 7월 12일(정유) 등.
- 55) *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11월 27일(을묘). “貧人寒士，歲製一衣，吉凶通服。今既常服青，而凶事又不可以青臨，則其勢自當人備兩製，而力有不及，則又不免於以青臨凶矣。其違禮傷化，反有甚於以白臨吉之爲不可也。蠶布薄綿，不宜染色，則富人朝士之衣，必取精細，而貧人寒士，又從而慕效，則耗財傷侈，庸有極乎。殿下以奢侈爲戒，而不免以侈導之，臣恐聖慮有失，而未及致詳也。”;
한원진 (1998),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201*, 민족문화추진회 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93. 南塘先生文集 卷之四 疏 陳情乞退兼附所懷疏.
- 56) *일성록*, 정조 17년(1793) 10월 20일(경진):
장조실록, 17년(1793) 11월 18일(정미).
- 57) *Ibid.*, 15년 4월 18일(임술).
- “爾等一人所着，幾爲中人十家之產。” 漢文帝가 露臺를 지으려고 匠人을 불러 그 비용을 물었는데, 百金이 든다고 하자 건축하지 않고, “이것은 중인 열 집의 재산이다.(此中人十家之產)”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유래한 비유로 생각된다. (*숙종실록*, 34년 10월 30일)
- 58) 박제가 (2013), *(완역 정본) 부락의*, 안대회 역, 파주: 돌베개, p. 193.
外篇 農蠶總論. “着一新衣，衆已睽睽然疑其爲娼也.”
- 59) *장조실록*, 17년(1793) 10월 20일(경진):
홍석주, *op. cit.*
卷之五. “夫吊人者，尚不宜羔裘玄冠身，有服者何可衣青。況表以布葛，裏以華采，其不倫亦甚矣。余謂，總功雖輕，亦所以表哀也。周衣之素，恐無不可用之義也.”
- 60) *장조실록*, 17년(1793) 10월 20일(경진):
홍석주, *op. cit.*
卷之五. “東人尙白，其敝衣亦以白.”
- 61) 정조대왕, *op. cit.*, pp. 420-421.
卷百六十九 日得錄九 政事四. “殷人尙白，故世謂東人之尙白，亦由箕子之遺，此亦有不然者。新羅疆界，本非箕封之地，而東京舊俗，亦多尙白。(중략) 此不過後世習尙之所使然，而近年以來，此弊尤甚，并與燕居服著之如鞞衣中赤莫之屬，絕未聞有染青之人，亦足爲未俗之弊習.”
- 62) *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11월 27일(을묘).
“東國之尙白，其來遠矣。殷人尙白，而箕子東來，不變其舊。詩云，有客有客，亦白其馬，史又稱，箕子白馬朝周，其所乘，亦必白之，則其加於身者，可知矣。箕氏，君於我東，傳世千年，則東俗之至今尙白，蓋有自矣。我東之變夷爲夏，以禮義見稱於天下者，實蒙箕子罔極之恩，我國建號，又因箕子之舊，則揆以存羊之義，箕子舊俗，宜非所變也.”;
영조실록, 43년 6월 27일(기미).
“頃者飭白衣之時，人或曰箕聖之來朝鮮也，其亦衣白，此我東風俗云，予則曰不然.”
- 63) 이학규 외, *op. cit.*,
洛下生集 冊二十 東事日知 青衣. “東俗之尙白衣，不知始於何代，意者，殷湯以金德王，色尙白，箕子殷人也，其封朝鮮也，亦教民白衣，至今仍之耳.”
- 64) 韓永愚 (1982),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韓國文化*, 3 pp. 19-20, 45-56.
- 65) *영조실록*, 43년 6월 27일(기미):
정조대왕, *op. cit.* pp. 420-421.
卷百六十九 日得錄九 政事四:
유득공 외 (1986), *op. cit.*, pp. 127-128.
古芸堂筆記 青鞞衣. “我東人，自來喜着白衣，甚無義，且易汚，數數澣濯糊礎炭熨，工費甚煩，較之染靛當倍從.”
- 66) 이덕무, *op. cit.*, p. 125.
士小節 卷之六 婦儀 服食. “男子之衣，澣有餘垢，縫有疏綻，膠堆米粉，熨穿火星，縹縹班班，寬窄無度，婦人之責也。匪爲期其侈也，迺欲致其功也。研帛如鷄卵，熨布如蟬翅，匪爲侈也，迺其功也。紡絲彈絃，熨衣搗帛，雖有婢侍，手自習之.”
- 67) “婦人漫評 - 흰옷” (1928. 1. 19), 동아일보, p. 3.
- 68) “白衣廢止運動” (1929. 2. 8), 동아일보, p. 1.
- 69) 유득공 외 (2000),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260*, 민족문화추진회 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106-108. 冷齋集 卷之六 誌·狀·表 先妣行狀.

- 70) 정조실록, 17년(1793) 11월 18일(정미).
- 71) 승정원일기, 영조 2년 10월 8일(병인).
“亨益曰, 小臣兒時見之, 先朝有尙青之命, 而丙辰丁巳間, 雖士子皆着青袍矣, 非久還廢.”
- 72) 명종실록, 10년 11월 19일(경술).
“音哀服素, 【蓋謂當時樂聲多哀, 服色尙素也.】 聲像已著.”